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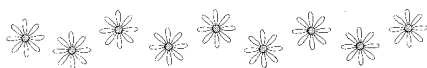
독감이란?

독감은 여러 가지 바이러스 중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전염성 질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날씨가 춥고 건조한 10월부터 4월까지 발생률이 높다.

3세 이하의 어린 소아나 성인도 3일 이상 고열이거나 기침이 점차 심해지고 흉통, 호흡곤란이 동반되거나 가래가 있는 기침을 하면 병원을 찾아 진료 받도록 한다. 만성심장질환, 폐질환환자는 생명 위협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월 정도 효과가 지속된다. 따라서 9월말에서 10월말 사이에 접종을 하면 독감유행시기인 1, 2월에는 독감에 대한 강력한 면역성을 갖게 된다. 늦어도 11월말까지 접종하는 것이 좋다.

계란이나 다른 백신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급성 열성질환, 6개월 미만의 영아는 맞을 수 없다.



독감 예방은 이렇게

www.babydoctor.co.kr

독감 증세가 시작되면 일단 진찰을 받는다. 고열과 피로가 주 증상인 독감엔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다. 토하거나 설사를 동반하는 경우 조금씩 나누어 천천히 먹이도록 한다.

독감예방접종은 이렇게

독감은 12월부터 2월까지 많이 발생하므로, 발생하기 전인 9, 10월에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면역지속기간이 3-6개월에 불과하므로 매년 반복해서 접종해야 한다.

예방주사를 맞더라도 즉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예방접종 2주 후부터 항체가 생기게 되며 한 달이 지나서 최고 치에 달하게 되고 약 5

독감예방접종시 주의할 점은 ?

흔히 접종부위가 붓거나 아프고 가려울 수 있는데 대개 48시간 이내에 좋아진다. 그리고 온몸이 아프거나 열이 날 수도 있는데 접종 후 6-12시간 후에 이런 이상반응이 1-2일간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독감 접종으로 인한 심각한 이상반응은 아주 드물다.

전에 독감을 맞고 부작용이 생겼거나 계란에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어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기관수축이 생기는 경우는 접종하지 말아야 한다. 열이 있거나 감기가 심한 경우도 접종이 곤란하므로 반드시 접종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PPFK**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각 지회 가족보건의원에서는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